

익산시, 기업맞춤형 지원사업발굴 앞장

해외 시장 개척 · 수출자신감 부여

정현율 시장, 중소기업환경개선 사업 선정 진흥기계 방문 현장행정 펼쳐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5일 왕궁농공단지내 농기계 제조업체인 진흥기계(주)를 방문해 기업에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번 현장행정은 2018 중소기업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진흥기계(주) 공장 LED조명교체 환경개선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함이다.

2018년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은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복

지·편익시설, 근로환경개선 등을 제공해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60% 지방비 40% 이상 자부담으로 올해는 25개 제조업체가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사업 중 복지편익사업은 5개 업체로 화장실, 기숙사 수선 등이며, 근로환경사업은 20개 업체로 노후조명시설 LED교체 및 환기시설 개선 등이다. 이영무 진흥기계(주) 대표는 "이번 중

소기업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공장 내 노후 조명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작업장 내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전기료 감면 혜택이 있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정현율 시장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진흥기계(주) 직원들을 격려하며 익산에도 지속적인 기업중심의 현장소통행정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기계(주)는 농기계 부품 및 작업기 분야에 전문기업으로 2012년 동양물산(주) 협력업체 9개사와 동반 익산시로 이전하여 부지면적 22만43㎡, 2017년 기준 매출액 72억, 고용인원 45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4년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여 트랙터, 콤팩트, 작업기 등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고객까지 창출과 구성원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 해외 시장 개척과 농산물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자유무역협정이란 어려운 농산물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농산물 생산 농가 및 유통 기업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림으로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하고 소득 증대 또한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이며, 지원대상 농가는 수출 물류비의 14%, 업체는 11%이다. 더불어 농산물 품목당 정부고시 표준

물류비 지원기준으로 수출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한편 주요수출품목인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등 신선농산물을 주 대상으로 해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 농업기회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농가·업체에서 작성한 보조금 신청서와 수출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분기별 기준 지급이 원칙이나 수출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방법은 농가·업체에서 농식품유통과에 직접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지난 4일 리마다 군산호텔에서 지역경제를 진단하고 한국GM 군산공장 회생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군산상공회의소, 지역경제 회생방안 세미나... 투자 유치 모색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를 진단하고 한국GM 군산공장 회생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4일 리마다 군산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한 인베스트먼트그룹 김재복 회장은 한국GM 군산공장의 회생을 위해 전북경제회생운동본부(가칭)를 설립하고 공장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한 SPC설립과 해외유명자동차 브랜드사의 공장인수, 그리고 새만금 자율주행차/전기차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사업에 자동차 산업 이외의 산업에게도 허가를 열어 국내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모색해 군산에 투자유치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김동수 회장은 "지역경제 회생방안 세미나를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GM전기차인 BOLT EV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군산공장에 배정해달라는 지역의 요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역의 역할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소재 4개 기관 다자간 상호 업무이행 협약 체결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실용화홀)에서 익산시·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사장 윤태진)·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 간 업무이행 협약식(이하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익산시를 비롯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업무협약(MOU)과는 달리 실무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과 이행협의를 마련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협약식이 끝난 후 4명의 기관장들은

"최근 경기불안과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라며 "이번 업무이행 협약식을 계기로 각 기관들은 상호협력력을 통해 공동사업 발굴 등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되도록 많이 개발하여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청년일자리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청년창업농 선발 영농정착금 지급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6일 청년창업농 20명을 선발 발표하고 영농정착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선발된 창업농은 영농정착금으로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최대 3억원까지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영농기반을 조성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기술 및 경영개선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확보의 애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으로 농업인구 고령화 추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청년창업농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총 50명이 접수했고 지난 3월까지 서면평가와 도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한편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시범사업과 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창업(법인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할 방침이다. /익산=정양원기자



"숲 체험 통해 자연과 교감해요"

군산시, 어린이 숲 체험 놀이교실 '호응'

군산시가 '2018년 상반기 어린이 숲 체험 놀이교실'을 운영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 숲 체험 놀이교실은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 지역 내 어린이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배울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첫 수업을 시작한 숲 체험교실은 관내 11개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6~7세 어린이 200여명이 참여해 봄꽃을 찾아보고 봄꽃 페이스페인팅, 라일락 새순 먹어보기, 어린이 캠페인 만들어 먹기 등 숲 속에서 가능한 자연 친화적 체험 활동을 즐겼다. 군산시는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 역시 월별·계절별로 차별화해 숲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고

나무와 풀 살펴보기, 곤충 관찰하기, 자연을 이용한 체험놀이 등 아이들의 오감 발달을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숲 체험교실을 통해 자연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오감을 활용한 참여주도형 활동으로 정서 함양과 더불어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8년 상반기 어린이 숲 체험 놀이교실'은 청암산 및 월명공원에서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되며 상반기에는 44개 기관의 어린이 2천여명이 신청했으며 하반기 참여기관은 오는 8월에 모집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기자